

제목 Theme: 이웃사랑 Love Neighbor

본문 Scripture: 누가복음 10:23-37

23.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Turning to the disciples, He said privately, "Blessed are the eyes which see the things you see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for I say to you, that many prophets and kings wished to see the things which you see, and did not see them, and to hear the things which you hear, and did not hear them."

2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And a lawyer stood up and put Him to the test, saying,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And He said to him, "What is written in the Law? How does it read to you?"

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And he answere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And He said to him,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But wishing to justify himself, he said to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Jesus replied and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and fell among robbers, and they stripped him and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And by chance a priest was going down on that road, and when he saw him,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Likewise a Levite also,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But a Samaritan, who was on a journey, came upon him; and when he saw him, he felt compassion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and came to him and bandaged up his wounds, pouring oil and wine on them; and he put him on his own beast, and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On the next day he took out two denarii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and said, 'Take care of him; and whatever more you spend, when I return I will repay you.'**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proved to be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robbers' hands?"**

37.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And he said, "The one who showed mercy toward him." Then Jesus said to him, "Go and do the same."**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너희는 보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24 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의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곳에서 “보고자 하였으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듣고자 하였으되”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전에 **22 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곳에서 “내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며, “내게 주셨으니”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는 말이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나는 자가 없고”라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신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하는 “천국복음”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하고, 가르치며, 능력으로 이루어 갈 것인데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21 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예수님의 원하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또는 성령과 동행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잘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사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즉 예수님을 통하여 소명을 받아 제자로 사역하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복음의 사역자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23 절에** 말씀하신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는 다는 것보다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되는 분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며,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성도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있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명으로 불러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천국인의 생활이고 구원을 이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그 율법사는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의 호칭은 “라바이” 또는 “랍비”라는 말로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관원과 달랐습니다(마가복음 10:17, 누가복음 18:18 절, 마태복음 19:16 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9 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질문한 그 율법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기를 잘 했거나 또는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실천한 적이 있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이웃은 이방인이 아닌 실질적인 자기와 관계가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은 기억할 수 없는 생활이 되어 있지만 구원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이 율법사와 같은 사람은 자비 또는 사랑을 베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 장 37 절에 구원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으며,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방문하였나이까?”라고 질문했는데 같은 장 44 절에 구원 받지 못하는 자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라고 했습니다. 즉 선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실천에 대하여 잘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위한 사랑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30 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를 당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율법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은 “거반 죽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옷과 음식, 물, 쉴 곳, 치료할 곳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 인이나 모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3 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떠날 때 물질을 주인에게 주며 돌보다 달라고 부탁했고 돌아 올 때 비용이 더 들어 간 것은 갚아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인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말도 걸지 않았던 즉 그들이 무시했었던 사마리아 인이었습니다(**요한복음 4:9 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의 대답은 **37 절**에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사는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중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회복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영생을 위한 이웃사랑은 “**공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실천은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3 장 1 절**에서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5 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야고보서 2 장 8 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26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이루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원을 이루는 이웃 사랑은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공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4 절** “공홀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2 공홀은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2:13 절**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홀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3 공홀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7 절**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25:34-40 절)

둘째, 구원을 이루는 이웃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1 전도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20:21 절**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누가복음 4:43 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2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44 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3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34 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에베소서 5:2 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셋째, 구원을 이루는 이웃 사랑은 **영생에서 보상을 받는 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1 실천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15 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영생에 축복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30 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 심판이 없는 영생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24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